

상공자원시책과

전기·전자공업정책의 추진방향

글/이 우 공(상공자원부 전기공업과장)

I.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

최근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만 국제경쟁 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중 가장 뚜렷한 것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불어닥치는 세계시장 개방화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고 세계 각국의 경제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최근들어 개발도상국들이 저임금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구 공산국가들도 개방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수출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우리의 수출정책은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 내적으로는 농산물,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함께 금융 및 자본 재시장과 투자시장까지도 개방해야 할 입장이어서 국내시장에서 선진국들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공산품의 Life Cycle 단축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또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와 생산 및 판매의 국제화로 우리기업이 이들과의 경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은 더 이상 국내시장에만 안주해 갈 수는 없으며, 오로지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과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유럽연합 등과 같이 선진국들은 경제 불력화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앞세운 그린라운드 정책 등으로 무역장벽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개발도상국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추격해 오고 있어 경쟁력이 약한 우리 업계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업계가 이러한 국제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업계가 새로운 각오로 도전한다면 이러한 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 중전기기업체들의 창의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품질향상 노력을 결집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하겠다.

II. 상공자원시책 방향

상공자원부에서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국제화, 개방화 및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며 선진국을 향한 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가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 경제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기업의 의욕적인 투자계획이 최대한 실천될 수 있도록 금융·세계상의 투자촉진책을 강화하여 설비투자를 최대한 촉진시키고, 임금수준에 대한 노총과 경총간에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노사화합을 확고히 정착시키며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규모에 상응하는 마케팅 노력을 배양하여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신장을 통한 무역흑자를 이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원자재의 수급안정과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켜 물가안정을 기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여 나아가기 위해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성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포항제철 등은 기업경쟁체제 도입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다.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기술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산업기술력을 향상시켜 가면서,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여 산업구조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조립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은 생산능력 확충과 기술개발을, 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신소재 개발로 고급화를, 미래성장산업인 항공우주 및 정보화산업 등은 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선진국형 전문유통업체를 육성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해 갈 것이다.

■ 산업의 국제화전략 추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맞추어 무역과 산업관련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공산품의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최대한 지원하며 품목별, 지역별 수출증진 대책을 강구하여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유럽 경제지역에 대한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통상활동을 전개하며, 정부유관기관과 기업간에 무역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산업구조를 개편

현물시장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에너지를 도입하고 석유·가스·전기 등의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며, 석유산업의 경쟁촉진과 발전 및 천연가스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의 자원의 탐사, 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비경제단광의 폐지 등 석탄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투자를 확대하며,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에 열병합발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 정책을 전개해 갈 것이다.

III. 전기·전자산업 정책의 추진방향

금년도 전기·전자산업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전기·전자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첨단기술제품으로 구조전환」을 추진하며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정보산업의 육성」과 「산업의 국제화추진」 「산업계의 협력체제 강화」 및 「UR에 따른 대응태세 완비」 등이다.

■ 전기·전자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반도체, 가전제품 및 중전기기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투자여건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해외투자 진출을 적극 것이다.

■ 첨단기술 제품으로의 구조전환 추진

정부주도, 정부-업체공동주도, 업체주도 등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하고 개발단계부터 양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정부의 기술개발방향 제시로 업체에 기술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표준화를 추진

정부가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ISO 9000의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국산개발 부품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96년까지 200개품목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단체규격 및 국가규격 제정도 유도해 갈 것이다.

■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멀티미디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단지건설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출산업화 방안수립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갈 것이며, 상

공자원부, 산업기술정보원,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과 기업체간에, 외환은행과 무역업체간에, 유통부문, 제조업 등 각업종별로 정보망을 구축하여 종합산업 정보망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국제화 전략의 효과적 추진

중국, 러시아, 대만, 미국, EC 등과 반도체, 컴퓨터, 전기, 가전, 통신기기, 정보산업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제품 대리점의 대형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며, 물류센터의 공동이용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갈 것이다.

■ 산업계의 협력체제 강화

공동기술개발, 특허공유, 해외공동진출, 공동판매 등 산업계의 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 UR협상에 따른 대응태세 완비

한-EU, 한-미와 관세 및 무세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미국, EU의 수입규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무세화 등 수출촉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수입다변화 품목과 중전기기 조정관세를 재검토하여 수입개방 대비책을 수립하고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해 갈 것이다.

IV. 전기공업정책의 추진방향

'94년도의 전기공업정책 추진방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및 기술라운드에 대비하여 기술의 고급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품의 품질향상 그리고 소재 및 부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기술개발 의식과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개발 자금의 조성과 개발된 시제품의 상용화 및 개발된 제품의 구매의무화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공업계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업계에 신속히 전달·배포하고 국제 시장조사단의 파견, 국제중전기기전의 개최, 외국의 전기기기전 참여 및 참관, 세계 각국의 전기관련 연구소, 협회, 단체 등과 기술협력, 정보 및 자료의 교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전기공업계가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1세기를 향한 중전기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 중전전기산업의 국제화를 이룩하는 초석을 다듬어 가고자 한다.

■ 21세기를 향한 중전기산업의 발전전략 수립에 담고자 하는 주요내용

중전기산업의 국내외 현황분석과 발전전망 예측, 중전기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중전기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각국의 동향 조사·분석, 중전기산업의 기술수준 평가 및 선진국의 기술개발 전망 분석, 기술개발 재원의 안정적확보 방안 수립과 기술개발 추진체제 확립, 기업군별 전문생산체제의 확립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계방안 강구 등으로 이를 종합한 『중전기산업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드라이브정책의 추진

UR 및 정부조달협정 가입 등 신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생산자 중심의 연구개발로 또 자금지원기관 중심에서 연구개발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체제를 개편하며, 전기공업진흥회내에 『전기공업 기술개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개발 추진전략과 개발제품의 실용화 및 생산전문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구분하여 각 기업별 생산품목의 전문화를 유도한다.

-대기업에는 자동화용 제어장치, 산업 및 환경설비용 전력자동관리장치 등 고도기술과 대투자부문 기술지원 전력설비의 시스템화, 전자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청정형·절전형 제품의 기술개발 및 수출 증대와 수입대체 효과가 큰 품목의 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고, 765kV 송변전설비, 전기자동차용 전지 등 고성능 전지 및 광섬유, 광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정하여 집중 개발토록 하며, 기술개발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상계관세 분쟁소지를 최소화 하고, 상계관세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한다.

민간기술개발기금은 한전이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중전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자금 중 한전에 상환해야 할 자금(총지원액의 50%)을 한전에 상환하지 않고 중전기기업체의 기술개발금으로 흡수토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업발전기금 및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중전기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와 기술개발지원

을 위한 한전기술개발자금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전력회사가 매출액의 0.2%를 중전기 기술개발비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생산설비자금을 지원·알선하고, 개발된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주요 업체에 우선사용 권장 및 일정기간(약 3년)동안 구매 의무화 방안을 강구하며, 고성능·고효율제품 등 우수제품 개발업체에 대하여는 구매·가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술개발 위육을 더욱 고취시켜 나아갈 것이다.

■ 수출기반의 구축 및 수출촉진

지속적으로 시장조사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신상품의 개발 및 수요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시 국내 중전기기의 우선사용 등 동반수출 방안 강구 및 대외경제 협력기금, 해외시장 개척기금 등에 중전기기의 동반수출 방안을 강구하며,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개발계획과 연계시켜 개발자금, 시험설비 등을 우선지원하고,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EU 및 동남아국가들의 전기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의 기술정보, 무역촉진 등 교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중전기기의 국제종합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중전기기산업을 외국에 소개하고 수출증대를 유도하는 한편, 선진외국 제품의 전시를 통하여 최신 기술개발정보 습득과 국내업체에 신제품 개발의 욕을 불러넣고자 한다.

■ 중·소기업의 발전적 개선

한전 등 정부기관의 중전기기 구매제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금지불(결제) 제도의 개선, 물품구매 예시제 도입 및 예시기간 연장, 구입물품의 검사제도를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 입찰방법 및 품질검사 간소화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중전기기 기능공 양성센터 설립 및 전기로 전용공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에 대한 해제예시제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수준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제품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규격, 한전규격, 국제규격 등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통일된 표준규격을 제정하며, 생산활동에 저해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갈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벽은 허물어지고 국내시장에서도 세계 유명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이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기술개발과 제품의 품질향상, 그리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에 있다고 하겠으며, 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히 입수하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 업계가 국제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기 위하여는 기업 각각이 노력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전기공업진흥회를 정보종합기관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공동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세계유수의 기업들이 국적을 초월하여 기업과 기업간에 합병·합작·연합· 제휴 등으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세계시장을 전략적으로 잠식하기 위한 방책이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굴지의 기업이지만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기업이 힘을 합하여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기위한 방책인 것이다.

우리 기업도 국내에서 계속 경쟁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유사한 기업끼리 기업합병이나 기업연합을 이루어 국제경쟁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이러한 상황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우리 중전기기업체의 대표격인 이천전기와 삼성이 기업합작 형태를 이루었는데 중전기기 업체들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잠식 및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난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기업합작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공부에는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과 산업정보망이 연결되어 수출입에 관한 각종 자료를 꺼내어 볼 수 있으며 전기공업과는 우리 중전기기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계의 성장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